

## 교회사례 발표 및 토론회

일정 및 목차

개회식 /사회:오도철 교무

.격려서 / 이종진 교화부장님

.심고

교회사례 발표

제 一 부 (11:00 ~ 12:00)

.조경주 교도 / 입교

.김광원 교도 / 청소년 교화(삼동청소년회)

제 二 부 (13:00 ~ )

.신영주 교도 / 범죄인도하기

.윤석화 교도 / 잠자는 교도 깨우기

.박우경 교도 / 순교

.유종형 교도 / 교화단 활동

종합토론

## 입교

이리교당 조경주

익산 이리교당 옆에서 조그마한 옷가게를 하고 있는 조경주입니다.

원기 81년도 하반기, 어느 날 윗집 교당 교감님이 아랫집 옷가게인 저의 집에 오셔서 입교에 대해 권장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입교하면 나오지 않는데 무슨 필요있느냐는 교도님들 말을 들으면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한탄하셨습니다.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은 올 교역자 책임일 것이니 반백년 기도에 정성 다 하자고 하시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 정성을 쏟던 일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당에는 입교를 400명 이상 시킨 윤시택 회장님, 200명 이상 시킨 송정오 교도님, 100명 이상 시킨 김충진, 심원향, 김유신 교도님 등 저보다 입교를 많이 시킨 교도님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당 교무님들께서 입교운동에 앞장서서 모두 9인 입교하기에 동참하는 정성을 보여주셨습니다.

82년도에 입교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당에서는 음력 정월부터 반백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리교당 교무님께서 저보고 50명을 입교시키라고 하시더군요. 그렇지만 입교한 후 교당에 다닌지 41년 된 저는 입교하는 일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감님께 입교를 시킬려거 해도 다섯명도 못 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범죄하는 날, 교무님은 법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복중에 인연복이 제일이고, 인연중에는 불연이 제일이다. 어느 구름 에 비 들어 있는지 모르니 입교를 시켜 놓으면 인연이 되어 언젠가는 나올 때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귀에 쫓게 듣고 깊이 새기면서 입교를 시킬 마음을 가졌습니다. 입교 후 20년만에 평택 창립주가 되신 분도 있다고 여러 창립주 이름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가게에 오신 손님에게 원불교에 입교하시라고 권유하니깐 그 분이 원불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 대강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도 입교를 하고 가족도 11명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을 정리해서 말만하면 입교를 하게 되면서 계속 백발백중되는데 이 일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당에 올라가 보면 정해진 시간없이 교무님이 수시로 기도를 하시는 것을 뵈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기도의 힘을 받은 것 같아서 열 두집을 입교하고 수시로 교무님께 보고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100명을 더 정성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무님의 기운과 위력을 믿고 거절하지 않고 하는데 까지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입교 시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하고 형제처럼 지내는 10년 지기동생이 있습니다. 원불교에 다니라는 소리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당에서 입교를 하라고 하니까 그 동생이 생각이 나서 어느 날 직장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원불교에 다닐 마음 없느냐고 물어보았는데 두 말도 않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주민등록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입교를 시켜 가지고 범명도 나오기 전에 교당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요. “지금은 내 체면 때문에 교당에 나올 지 몰라도 먼 훗날에는 내가 고마울 때가 있을 거라고요.” 동생은 “언니, 지금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직장에서 관리책임자를 맡고 있는데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염주숙의 대종사님 사진을 보고 마음을 가라앉힐 때가 많아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작년에 입교 대표로 중법사님을 모시고 총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너무 너무 잘하더군요. 제가 따라와서 보니까 한 50여명 모인데서 하는데 그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희 집 바로 옆에 할아버지가 이리교당을 짓기 전부터 사시는데요. 담배를 파시는 그 할아버지는 너무 꼼꼼하시고 여간해서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해마다 교당에서 바자회를 열 때면 교당 전체가 웅성거리고 시끄럽고, 또 팔죽을 끓이다보면 연기가 그 집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집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 집을 어떻게라도 입교를 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작년에 입교운동이 벌어졌을 때 할아버지께 가서 “할아버지 입교하세요”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할아버지께서는 혼자 계십니다. 할머니도 계시지 않고 하니 며느님과 사의하겠다고 그러시더군요. 저는 사의하고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가서 할아버지도 계시고 수험생도 있고 현재 우리가 반백일 기도 도중이니 기도도 열심히 해 주고 할 테니 입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우리는 그런거 안해요.” 그러더군요.

열세집째 거기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 지나서 여학생 한 명이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봉투안에는 초값 20,000원과 그 할아버지네 식구들의 주민등록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초 값은 안 주셔도 된다고 다음에 주셔도 된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교감님께 이렇게 해서 그 집에서 입교를 했다고 그리고 또 주무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팔죽을 끓이면서 미안한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언니, 옆집이 입교를 했어요.” 했더니 “너, 정말 장하다. 어떻게 그 집을 입교 시켰니?”하시더군요. 그 집을 입교 시키니 그렇게 좋더라구요.

금년 개교기념때 초 10각을 사서 저 5각 쓰고 교당 5각 드리라고 하셨는데 열린 교감님께 가서 “그 할아버지가 초 10각을 사주시네요.” 하니 그 할아버지 지도 잘 해주시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서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입교하신 분을 보면 안 했을 때보다 더 소중함을 느낍니다. 제가 입교를 해보니까 우리 교

무님들도 교도들을 볼 때 소중하게 생각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입교를 할 때는 사람과 사람사이에 신의가 있어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절당하니까 말을 못하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집을 가려면 병원에 입원한 집이 몇 있으면 문병도 자주 다닙니다. 제가 혼자 조그마한 장사를 하니까 가게문을 닫고 갑니다. 장사를 못해도 입교하고 오면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화 교화단은 그 당시 40단이었고 현재는 47단으로 7단이 늘었습니다.

입교때마다 그래프를 그리고 단별로 선의의 경쟁을 하니까 그 당시에 1,770명을 입교하더군요. 1년이면 교당 입교숫자가 평균 150명 정도인데 10년동안 할 것을 1년에 다 했습니다.

법 높으신 교감님, 교무님, 교도님 열심히 기도 올리고 밖으로 실천하고 해서 우리 교당 인원이 2,70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교도 입교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입교만 하면 뭐해. 나오지도 않는 사람 하면 뭐해...”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힘이 쭉 빠지고 염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혼자 가만히 있습니다.

법회가 돌아옵니다. 그 무렵에 계속 우리 교구장님께서서 입교에 대해서 몇 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년 후에도 짝이 틀 수 있고 20년 후에도 짝이 틀 수 있고 30년 후에도 짝이 틀 수 있으니까 무조건 입교 해놓고 보면 어느 땐가는 나오기 마련이다.” 이렇게 하시면 그런 소리가 썩 들어갑니다.

2월달에 추웠는데 교감님께서 맨 처음 가게에 오셔서 “조경주 50명만 입교해.” 그 어른한테는 너무 심한 소리인데 “교감님도 가늠생이 좀 있어 보세요. 어떻게 50명만을 합니까? 제가 40년을 다녀도 열 명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말을 하고 보니 죄송스럽더군요. 너무 말을 심하게 한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 같이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오셔서 부탁을 하는데 한 번 해보자 하고 한 것이 처음에 11명 입교시킬 때가 너무 좋더라고요. 한 명이나 두 명은 입교시켜도 별로 한 것 같지도 않았습시다. 한 가족이 대여섯명 여나쁜명씩 입교를 하면 한 것 같더군요.

저는 입교를 시킬 때 사업이 올라가는지 성적이 올라가는지 생각조차 안 해봅니다.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올라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 것도 생각도 않고 어른이 시키니까 한 입교가 100명 정도 했습니다. 100명 정도 해야 우리 윤희장님 같은 양반에게는 대지도 못합니다. 저로서는 처음으로 입교를 그렇게 시키니까 장사를 못해도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더군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옛날에는 주소하고 이름만 있으면 입교가 됐는데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를 다 써야 하니 어떤 집은 무슨 주민등록 번호까지 다 써야 하냐고 합니다.

엄마들이 식구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가 없지요.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주민등록등본까지 떼어다 준 집도 몇 집 있습니다. 그런 집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선물을 합니다. 병원 병 문안을 가면서도 항상 선물을 챙깁니다.

교당에 조일준씨라고 일타원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제가 발표를 한다 하니 이 말을 꼭 하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 제 말도 다 못하고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니 꼭 이야기해야 한다 하시길래 “언니가 가서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니 당신이 건강이 안좋으니 못가신다고 저에게 말하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주 전북대학 병원에 그 분의 동생이 입원하게 되어 간호를 하고 있었답니다. 어떤 학생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머리로 이상한 애가 왔다 갔다 해서 너 여자니? 남자니? 하고 물어보았더니 말도 안 하더라고요.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까 여학생이었습니다. 너 여기에 왔냐고 물어보니까 머리가 아파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귀신이 들린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입교 운동 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도 입교할 목적으로

살살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니 천도재를 지내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부모에게 말을 했대요. 그 집은 가정이 장로집이더라고요. 장로집인데 그 김성민이라는 학생이 목쓸병이 들었던가 죽으면서 자기 어머니한테 유언같이 하면서 어머니 제가 죽으면 전주 여상에 가서 윤영옥이라는 학생을 찾아서 화장해 가지고 여수 앞바다에 가서 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자 자기 어머니가 아들이 죽으면서 유언하는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옥이가 여수 앞 바다에 뿌리고 오니까 그 때부터 머리가 아프고 월요일만 되면 기절해서 죽어나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귀신들은 굿해야 2달이나 3달 가면 도로 하니까 내 말듣고 재를 지내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딸 살리는 욕심으로 무슨 말을 못 듣겠습니까. 자기 집에 가자고 해서 갔더니 굿하려고 날까지 받아 놓았다고 하면서 가자고 해서 가니까 무당들이 돌이 앉아 있더니 그 언니를 일타원 조일준님을 보더니 “아, 영옥이는 이제 다 낫겠지만 우리는 가야겠네, 아이고 무서워서 가야겠네” 하면서 막 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쪽 이야기를 하고 전주 팔복교당에 연락하여 재를 지내려고 다 절차를 밟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를 지내려고 하는데 재를 지내는 날짜를 잡는데 잡고 보니 김성민이 죽은지 꼭 1주년 되는 날이었답니다. 재를 지내면서 6식구가 입교해서 아침, 저녁으로 독경을 하라고 하였더니 그 부모님은 장로님이셨는데 딸이 미쳐서 안나가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고 딸을 위해서 시키는 대로 독경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언니도 역시 남의 재를 맡고 또 타종교이었기에 더 신경을 쓰셔서 전주를 아침, 저녁으로 다니셨습니다.

재를 지내기 시작하자, 머리를 짹짹 쥐고 죽어 나자빠니고 또 깨어나면 머리 쥐었다고 울고 나리가 없더라고요. 머리를 쥐는 것은 밖에 못나가고 학교 못나가게 머리를 쥐고 또 쥐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 교당에서 간단히 말씀하시는데 머리를 쥐으면 누가 귀신이 짹는거냐고 물으시는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가 머리를 쥐고 깨어나면 머리를 쥐었잖아요. 학교도 못 가지 나가지도 못하지 하니까 울고 불고 합니다. 그래서 재를 열심히 지내 아침, 저녁으로 독경했습니다.

재를 지내기 시작한지 6주째 쯤 되어서 언니 꿈에 그 학생이 나타나더니 언니는 보지도 않았지요. 돈 3,000원만 주세요. 5,000원만 주세요. 하고 돈을 달라고 하였답니다.

또한 영옥이 어머니 꿈에 성민이가 “어머님, 죄송해요.”하면서 빨간 글씨로 “이제 영옥이 머리 안짹아 갈게요. 제가 필요해서 그랬어요.” 그랬답니다.

그리고 나서 6주가 넘으니까 정말 머리를 쥐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머리를 쥐더니만...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자꾸 발작을 일으키니까 무서워하며 나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심했지만, 지금은 다 나아서 학교에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팔복교당에 주인 역할을 하시면서 남자 교도님을 많이 입교도 시키시고 주인노릇을 한답니다. 그래서 보람을 느낀다고요.

그 해 정월 초하루 기도로부터 50여일 기도가 끝날 때까지 송정호 교도님이 임상리에서 50명하고 목천동에서 30, 포항에서 30명 타지역 가족단위로 모두 입교시켰고 김충진교도님은 서수에서 100명, 회장님은 입교시킨 분들을 모아 한 단을 만들어 잘 나오도록 지도하십니다. 아마 제일 잘 하는 단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교당은 7단이 더 붙었습니다.

교무님, 교감님 애쓰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입교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지금은 교감님 앞에서 헛소리 한 마디 못합니다. 너무 기운이 무서워서 거짓말을 못합니다. 앉아서 장천리를 보는 양반한테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안합니다.

단편성할 때면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교도들은 “단 바꾸면 안나가요” 하는데 일단 바꿔 놓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더 많이 붙었습니다. 원래 많이 나오는 교당이지만 35명도 더

늘더군요. 더 성의있게 잘 나오고 잘 해지더군요. 교감님 단 바꾸는 바람에 삼세업장  
녹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근 한 달을 교구장님께서 법회를 보셨어요. 그래서 조용해지고 조  
용해지고 하더군요.

교무님들은 일생 피땀 흘리고 여기저기 개척지에 가서서 고생하시면 중생들을 제도 하시고  
교화를 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그렇게 역할을 하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입교를 하는 중에서 남녀노소 귀천, 지역관계없이 다 해지는 것  
같아요. 입교만 시킨다면 서울 거래처에 가면 100명도 좋고 200명도 해 올 수 있지만 그럴  
없지요. 불연이 닿고 인연이 있는 집만 입교시켰습니다. 입교를 시켜보니까 순서대로  
내려와서 입교를 했는데 앞으로도 입교를 전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산달이 언젠가 보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봅니다. 몸만 풀면 애  
기 입교 시키려고요. 전주 사는 아들 친구가 어버이날 저를 보러 왔는데 “어이, 자네 식구  
몸 언제 푸는가?” 했더니 7월에 난다더군요. 그래서 “그러면 나면 바로 시하고 적어서 나한  
테 주게. 이름도 좋게 지어줄게.” 해서 맡아 놓았습니다. 또 금년에 둘 몸 풀을 집이 있습니  
다.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더라구요. 이유가 어떻든간에 아무한테나 말을 못합니다.  
저희 힘이 아니고 진짜 교감님, 교도님들 덕인 것 같습니다. 교무 반백일 기도일에 정성을  
다 드렸습니다. 기도기간에 또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저번에 교감님이 “입교 또 해. 청년 학생해” 하시길래 “저 청년 학생은 할 지 모르겠네요.”  
하면서 교감님께 “이제 성불은 못하고 제증을 할 것 같아요.”했더니 교감님이 “자네가 언제  
제증하는가?”하시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산종사님 말씀에 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둘 있는데 하나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고, 하나는 안하려고 한 사람이 제일 무섭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 나는 못한다 안 한다 하면 절대로 못하는 것이구요.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면 진리님과 스승님께서 호렘하여 주시고 기도위력이 있다고 믿으면서 동지님  
들과 함께 정성을 드리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무님, 교도님들 한 마음으로 입교시켜서 교당에 주인들을 만들어 원불교가 더욱더 발전  
하기를 법신불 사은님께 기원합니다.

## 청소년 교화

### 금암교당 김광원

저는 전주 중앙여고 국어과교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제목을 청소년 교화중에서 삼동 청소  
년회 동그라미의 활성화방안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  
다.

#### 1.조직

전주중앙여고 [동그라미]는 1996년 6월 16일 전주교당에서 발대식을 가진 이후 이제3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처음 생길 때 중앙여고에서 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삼동청소년회는 1989년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봉사활동 단체이지만, 전례가 없었기에  
학교 현장에서 학교 단을 조직학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름안라 특정 종교 단  
체에 의해 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꺼려하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  
다. 그렇지만 문제가 될 것이 없었기에 자신 있게 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장선생

남께서 바로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종교행사는 하지 않고 종교 색을 띠지 않는 순수한 봉사 활동 단체라고 공포를 해서 타종교 학생들도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부터는 전라북도 교육청의 [동그라미] 결성 협조 공문이 각 학교에 오고 있어서, 담당할 지도교사만 있으면 언제라도 조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단을 조직하여 이끌어 줄 지도교사와 그 학교단과 연계하여 실제 이끌어 줄 수 있는 교무님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교단에서는 청소년 교화의 차원에서 삼동청소년회 [동그라미]를 관리할 수 있지만,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얻기 위해 가입하고 있는 만큼, 이 두 가지의 동기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한 학교단을 담당할 수 있는 지도교사와 교무님의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작년 초에 외부에서 투서가 왔습니다. 학부형인 것 같은데 악의에 찬 내용으로 교장선생님과 저, 그리고 학생들에게까지도 우편 배달이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가기 전에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가치가 없는 일이라 무시하였습니다. 주소도 불명이었고 가명이었습니다.

올해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 2. 운영

작년부터는 특별활동 부서의 하나로서 [삼동청소년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특별활동 붓로 운영하게 되는 장점으로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정기적으로 확보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교무님을 모시고 교양강좌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원불교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인문계에서는 특별활동이 원활히 전개되지 못합니다. 우천시에나 행사가 있으며 거의 못해서 침해를 받았습시다.

그러나 올해는 목요일의 5교시에 짜여져 있습니다. 전교가 빈 시간이므로 특별활동 시간에 침해를 받지 않아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월초에 신입생을 받게 되면 조직을 다시 편성하게 됩니다.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총단장을 뽑고, 각 단장과 중앙을 뽑게 됩니다. 3학년은 봉사활동 등에 실제 참여할 수는 없지만, 선후배의 교류와 연대감을 위하여 3학년도 단에 포함시켰고, 2학년 때 단장으로 활동했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각 단에 한 명씩 명예단장을 임명하였습니다.

봉사활동 단체이지 만큼 평소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듯하여, 단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교내 봉사활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고, 점심을 마치고 20분 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년말에 교내 봉사활동 시간을 산정하고, 학교자의 결재를 받아 확인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꾸준히 참여하면 10시간 정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봉사활동 시간의 확보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활동을 하는 동안 소속감도 느끼고, 단원끼리의 우정도 깊어지고, 또한 자기도 모르게 봉사정신이 길러지리라 생각합니다. 조그만 일이지만 칭찬하면서 매우 중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시간의 운영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삼동회를 만들기 전에는 문예부와 단전호흡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TV인생 노트]에 출연한 박청수 교무님의 비디오테이프를 보여주면 원불교에 대한 이해가 더욱 쉽게 되리라 여겨 녹화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박청수 교무님의 [나를 사로잡은 지구촌 사람들]을 상당수 구입하여 돌려가며 읽을 수 있다면, 이 또한 간접 교화로 큰 구실을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북한의 실상을 담고 있는 비디오를 시청하기도 하였고, 적은 금액이지만 뜻을 모아 [어깨동무](북한 어린이 돕기)에 성금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성금도 좋지만 교육적 효과 또한 있었으리라 여깁니다.

올해 체육대회 때(5월14-15)는 삼동청소년회[동그라미]를 비롯하여 4개 준거집단에서 장터(음식판매)를 운영합니다. 회원들 상호간에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본회는 이 장터 운영을 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동그라미]는 이 장터 운영의 큰 주제를 '북한 어린이 돕기'로 정하고, 그 이익금의 상당액을[어깨동무]에 보낼 계획입니다. 이익금만 남기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삼동회의 표어처럼 잘 연결 시켜서 할 생각입니다.

장터를 4개 집단에서 하기로 했는데 학생들 마저 꺼려합니다. 우리도 고아원, 양로원이 있는데 우리부터 도와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고아원이 없어질 때까지는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발상입니다. 그런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교 [동그라미]에서는 작년, 재작년 '원불교청소년성가대회'에 참가하여 인기상, 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성가대회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쉽기도 하였습니다. 입상 여부보다 성가 연습을 하면서 입교한 학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화의 한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회할 때 입회 원서가 있습니다. 조직화 시키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용자료(설문)를 만들었다. 자발적으로 참석한 사람들을 정예화하려고 한다. 그리고 작년에 하려다 못했던 일로 본교의 [동그라미] 문집을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원고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못했습니다만, 올해 다시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할 수 만 있다면 좋은 추억과 전통의 계기가 되리라 여깁니다.

입회비는 오천원이며, 월 회비는 천원입니다. 이렇게 모아진 돈은 교외봉사활동이나 수련회 등에 지원됩니다. 그렇게 되면,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혜택이 되고, 빠지는 학생에게는 손해가 됩니다. 본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교외봉사활동입니다. 본 학교단의 경우 이 행사의 모든 프로그램은 교무님(전주교당 황경준 교무님)께서 거의 이끌어 가십니다. 교무님은 일년 계획, 월중 계획 및 행사, 방학 중 수련회 등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을 잡고, 학생들과 더불어 행사를 지도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각 기관과 연계하는 일을 교무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교도 중에서 지도 교사가 있으면 좋겠고 그것을 연결시켜 해줄 수 있는 교무님이 계셔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교외행사에는 지도교사인 저는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도교사와 교무님 사이의 역할 분담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교내 활동(지도교사)과 교외 활동(교무님)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올 여름의 수련회로는, 올해부터 원불교 삼동청소년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시설 좋은 이 수련원을 본회에서 운영한다는 자부심만 가져도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며,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라북도에도 그런 수련원이 있어 자주 이용하여 교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전주중앙여고[동그라미]에서 실시되는 대가의 일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회를 계기로 전주교당에 나오고 있는 학생은 10명 정도 됩니다만, 좀더 효율적인 운영 방법이 모색되고, 그 결과가 좀더 활기를 띠는 교회사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 3. 삼동청소년회 [동그라미]에 대한 정책

청소년 교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 이제는 원불교인이라면 누구나 그 중요성을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뜻의 결실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심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차지

하는 봉사활동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리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대성과 더불어 삼동회 [동그라미]는 원불교 청소년 교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리라 여겨집니다.

저는 크게 시작한 것도 아니데 3년 전 전주교당에 다닐 때 황경준 교무님이 한 번 해주시면 어떻겠느냐는 말에 그러자고 했는데 마침 제가 1학년 담임을 맡은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하려고 시외버스를 타고 갔으나 허탕치고 오는 모습을 보고 구실을 삼아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쉽게 만들어 졌다. 하면서 느낀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원불교 각 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삼동청소년회에 대한 인적,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신념과 의지만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라는 요구는 체계적인 정책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사업일수록 적절한 동기 부여와 관심은 필수적인 것이라 여겨집니다. 둘째는 각 교당의 교사회가 활성화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교사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가 제고되어야 하리라 여겨집니다. 셋째는 [동그라미]의 지도교사와 더불어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청소년 담당 부교무님이 계셔서 관심을 갖는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루종일, 일주일 내내 학생들과 시달리는 교사가 토요일고 일요일 학생들을 인솔해야 된다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특별활동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교화용 비디오 자료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교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종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사 입장에서 특정 종교를 강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가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것을 비디오를 통해서 가능하하다. 예로서 박청수 교무님의 비디오에는 원불교를 소개하는 내용도 나오고 원불교의 정신도 나오므로 자연스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자료를 개발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원불교의 삼동윤리, 일원주의 사상이 봉사정신의 진정한 기초요,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큰 진리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교화에 큰 힘이 되지 못하는 저를 불러주셔서 스스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회인도하기

장충교당 신영주

### 1. 원불교와의 인연

무종교론자인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 쉬는 때가 있었습니다. 6개월을 쉬고 나니 마음에 갈증이 오더군요. 그때 원불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원기 58년 소성교당에 입교를 하여 원불교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교무님께서 그해 11월 중순경에 수계농원에 가면 공부를 더 할 수 있고 마음을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 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에 진학할 형편이 못된 저는 수계 농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12월1일부터 3개월 동선을 타고 1년을 수계농원에서 보냈습니다. 영장이 나와 수계농원을 나오게 된 후 다시는 그 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전무출신에 대한 서원도 키워보았지만 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인연이 없어서 오늘 날 재가 교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인연이 있었다면 전무출신의 길로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중사님께서 이생에는 전무출신 하지 말고 재가교도로서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뜻이었나 봅니다.

80년 1월 20일 정읍교당 회장님을 주례로 모시고 정읍교당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사업장을 서울로 옮기게 되었고 생활이 바뀐 이유로 원불교 신앙생활을 잇고 살아간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시골마을에서 함께 자랐던 김대진(장충교당 교도)친구를 만나게 되어 그 친구의 인연으로 장충교당에 새롭게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입교를 하면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원불교가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어느 계기가 되니까 다시 나가게 되더군요.

## 2. 일원가족교화

원기 75년 다시 시작한 신앙생활에 저는 가족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생활이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생의 습관을 벗어 버리지 못했음인지 방탕의 생활도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놀자, 먹자, 쓰자를 목표 삼아 가정의 간섭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나의 삶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아내를 교당에 인도하여 마음공부를 시키면 되겠다는 생각에 원불교에 대한 아무 이해 없는 아내(이경신)와 아이들을 입교시키고 교당에 법회를 보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집(봉천동)에서 교당(장충동)까지는 너무 멀었고 아직 법회에 대한 즐거움보다는 남편의 말을 거역하기가 어려워 마지못해 다니는 아내와 아이들을 교당에 적응시키기 위해 일요일마다 봉고차로 내가 먼저 챙겨야 했습니다.

처음엔 마지못해 억지로 따라 다녔던 아내(이경신)는 차츰 마음공부가 되는 것 같더군요. 저보다 더 많이 공부를 했어요. 저도 이러면 안되겠구나 하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아내는 이제 교화단 중앙역까지 맡고 단원들을 챙기며 심고와 기도생활은 물론 저녁 9시 반이 되기 전에 단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심고 시간을 챙겨 주기도 하며 제가 혹여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연원이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 또는 단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며 충고를 하게 되니 더 열심히 살아야 되었습니다.

저와 한 집 살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의와 이사를 같은 날 했지만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죠. 그 부부는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결혼한지도 얼마 안된 신혼부부였습니다.

그 부부는 윗층, 저희는 아래층에 살았고 매일 같이 아래층 저희 집에 와서 놀고 챙기고 하였습니다.

한참 열심히 원불교에 다니고 있는 저는 안되겠다 싶어 입교를 시켰습니다. 입교를 시키면서 신입교도라든가 연원들을 챙기며 법회출석을 하고 그 부부와 같이 봉천동에서 창충교당까지 매주 교당에 다녔습니다.

저의 가족은 거의 일원가족입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3명 있고 따로 살림하는 식구가 다섯입니다. 제가 팔남매의 장남인데 어머니은 제가 수계농원에 계시 때 입교를 하셨습니다. 그 뒤에 저의 형제자매들을 입교를 시켰습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어 입교만 했지 법회출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안은 했습니다. "내 생일날 나한테 오지 말고 교당에 와서 입교를 하면 그것이 나에 대한 선물이다." 해서 지금은 한 달에 한번이라도 가족법회일을 챙겨서 함께 교당을 찾아 교당이 낯설지 않도록 해주고 법회가 끝나면 점심을 사주는 등 해서 재미를 찾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와는 20년 연하인 막내 남동생(신원중)이 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조계종 학생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전북지구불교학생회 회장까지 역임하고 정읍교구에서는 이름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남다른 활동을 하던 동생을 원불교에 입교시켜 일요일이면 함께 법회를 보도록 챙깁니다. 이렇게 하여 저희는 일원가족이 되었습니다.

### 3. 신입교도 챙기기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 되었지만 저희 단에 젊은 교도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에 단장역을 맡고 있습니다. 봉천동에서 일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자 아직 신심이 없는 젊은 부부를 그대로 두면 공백기간이 생기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금호동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게끔 직장에서 물품납품 시키는 거래처를 소개 시켜주었고 금호동에 있는 신심있는 교도님을 소개하여 교당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연을 맺어 주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잘은 하지 못하지만 한 분 한 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 되시는 분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분들은 일요일이면 늦잠을 자고 또는 밖으로 나가서 놀이를 즐깁니다. 그러므로 챙기지 않으면 안됩니다.

신입교도를 법회에 출석할수록 금요일, 토요일부터 전화를 합니다. 또한 일요일 오전 8시면 제가 맡고 있는 단원들과 아내가 맡고 있는 단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챙깁니다. 젊은이들이라 늦잠을 자게 되면 법회시간을 놓치게 되어 법회에 불참하게 되니 오전 8시면 잠들어 있는 교도들을 깨웁니다.

일요일이면 일산에서 장충교당에 갑니다. 가는 도중에 금호동에 사시다 일산으로 이사오신 분과 또 일산에 살고 있는 분을 입교시켜서 그 분까지 태웁니다. 제가 봉고차로 세집 식구들인 7-8명을 태우고 장충교당까지 갑니다. 저의 바램이 있다면 제 차가 12인승인데 12명을 태워 법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현재 9명까지는 태우고 다닙니다.

교통편이 불편해 교당오기를 귀찮아하는 교도님이 계십니다. 몸이 불편하다거나 교당에 나오기 싫어하는 기색이 있으면 차를 몰고 오는 도중 핸드폰으로 지금 어디쯤 오고 있으니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합차에 모두 태우고 옵니다. 법회가 10시인데 제 차가 10시5분이나 10분이 되어야 교당에 도착합니다. 그 때는 법당이 텅 비어 있다가 그때서야 찰니다. 이전 교무님께서 제 차가 와야 법당이 가득 찬다고 하시면서 격려도 해 주십니다. 좋은 법문을 듣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매주 마다 이런 일을 합니다. 저희 단은 10명입니다. 제가 30대 단장하고 있는데 젊은 층들이기 때문에 법회 참석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회는 빠지더라도 단회에 참석하여 원불교와의 인연을 끊지 말아 달라고 당부합니다. 저희 단은 시간조정을 세심하게 하여 단회 날짜를 따라 받습니다. 또한 새로운 교도가 입교를 하면 교전을 선사하고 법회에 계속해서 출석하여 열심히 공부하면 단회를 통해 기운도 살려주고 청정주나 인연복에 대한 액자도 선물합니다.

저희 단은 아무래도 젊은 층이기 때문에 흥미위주로 해야 합니다. 원불교 법 자체가 개인 개인한테는 마음에 닿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딱딱하고 다정다감한 맛이 적다고 법회에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은 말합니다. 아직 신심이 부족하고 원불교에 대한 이해, 법회에 대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들이기에 단법회를 통해 원불교를 이해하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교도들이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하기가 힘듭니다. 젊은 층은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 중간층에서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신입교도, 특히 젊은 신입교도들은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도 해보고 실천도 해봅니다. 저희 단은 모두가 부부단원인 관계로 부부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상담자 역할을 합니다. 대화를 하다보면 의지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까워집니다.

제 자신도 부부싸움을 많이 해 옆 사람에게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음이 정립도 되고 가족이 중요하고 모든 법의 인연들이 중요하고 동지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원 집에 불화가 있으면 꼭 찾아갑니다. 법회에 불참을 하는 단원이 있으면

단원들과 함께 그 집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나의 신앙체험담도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일요일 오전이면 몇 시에 집에 오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전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일요일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단원들과 함께 합니다. 법회를 마치고 교당을 나선다고 헤어지지 않습니다. 챙겨준다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 것 같습니다. 형제처럼 법연이 두터워지면서 원불교인으로서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신입교도들은 자주 만나고 챙겨주고 베풀고 정을 주지 않으면 교화하기가 매우 힘이 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신심이 생기고 주인이 될 때까지 법회시간도 챙기고 교당행사도 챙기고 단회도 챙기고 단원들가늌 애경사도 챙겨야 겠습니다.

교당 봉불식을 4월19일에 했습니다. 교당 지은지 만 3년 되었는데 그 동안은 유아원에서 법회를 보았습니다. 교도님들은 불편해 하면서 나옴 싫어했지만 교무님들이 다독거리며 법회에 한 명이라도 더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법회에 끊임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 4. 법회에 대한 나의 소견

처음에 가족들을 인도하면서 가졌던 작각을 깨달으면서 저는 법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이 있습니다. 바쁘게 일주일을 살다가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교당을 찾고 교무님의 법문을 듣습니다. 법문을 통해 나의 한 주 생활을 점검해 보고 돌아오는 일주일을 사는 지침을 얻습니다. 일주일 사는 동안에 목요일까지는 마음도 챙겨지고 몸도 챙기며 주의를 가지고 살다가 금요일쯤 되니 법회에 될 수 있는 한 빠지지 않도록 주변생활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약속을 배제합니다. 이러한 나의 소견을 저희 단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경계를 통해 제가 공부한 체험담도 있어 이 자리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본명이 신동수 법명이 신영주입니다.

17년 동안 한 회사의 식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제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마음과 머리속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계신 사장님이하 간부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당신이 아니어도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납품받는 회사의 갈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도 어지간히 고집도 세고 성질도 있기에 한 달여간 회사와의 대립에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많은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에 원불교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사회에서 매장되고 저 자신도 폐인이 되다시피 하여 크게 낭패를 볼 뻔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법회에는 계속 참석하여 대중경 법문을 봉독하고 교무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힘을 썼습니다. 마침 법회 설교때 교무님께서 “모든 걸 털어라, 털고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내 욕심을 보려라. 나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라.”하는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저는 매주 법문 내용을 제 노트에 적어 놓는데 처음부터 넘겨보았습니다.

어려움이 닦혔을 때 생각이 나더군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사랑과 이해와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지금이 나 자신에게 그 공부를 하도록 이러한 경계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영망이 된다. 이제 신동수는 죽었다. 신영주로 다시 세상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장님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고 교무 선생님께 그동안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말씀드린 후 신영주로 거듭났음을 다짐하니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마음을 가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깨달은 것은 교화와 현실 생활을 따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찌 다행히 대종사님의 법문에 들어와 이러한 공부를 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부면 자다가도 행복하고 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법회출석을 열심히 해야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고 어느 경계에 부딪힐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처신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도님 두 분을 소개합니다.

두 분은 부부입니다. 한 분은 원불교를 조금 다니셨고, 한 분은 전혀 모르십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전혀 원불교를 이해하지도 않은 뿐 자기 가족을 원불교로 인도한 교도까지 미워하고 교당에 나가는 것까지 싫어하고 짜증을 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공을 들이는 중입니다. 이 분이 지금은 제 말은 신임을 해주십니다. 법회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 참석하십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서로가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할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굳은 신심이 서지 않아 경계를 따라 전생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여 해매고 있는 것 같아 그 분을 위해 심고도 하고 기도도 하며 교화를 하는데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함께 기운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금년의 1인1도 목표를 '형님이 법회 참석하고 원불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하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처럼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모시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막무가내로 거부를 하더군요. 하지만 기회가 왔습니다. 그분들이 집이 협소하여 큰집으로 무리를 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분이 운영하는 물건을 납품하고 받은 어음 2억원이 부도가 났습니다. 가족회의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야 할 형편이었나 봅니다. 저는 그분을 모시고 은행에 가서 저희 집을 담보로 설정하고 은행 대출을 하여주고 적금까지 함께 대출해서 우선 급한 것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저 또한 남은 나의 습관을 때도록 항상 공부하고 마음대조 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앞으로 진정한 원불교인이 되어 공부하는 주인이 되고 지금 두텁게 쌓인 법동지들과 윤기를 더욱 더 나누면서 교무님들과 법담도 즐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단원들이 2/3이상 참석하면 제가 점심을 사줍니다. 교무님께서도 돈을 쓰지 말라고 하시지만 저는 기쁜 마음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주에 빈 만큼 돈이 들어옵니다. 채워지고 쓰고 채워집니다. 다음생에서는 대종산님 정통 제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미가 새록새록 남을 느낍니다. 열심히 살면 그 속에서 인과도 깨닫게 되고 진리도 터득하며 사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새벽기도도 하고 심고 생활 열심히 하며 저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저와 인연된 모든 교도님들이 법열을 느끼면 생활하도록 간절한 염원을 갖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잠자는 교도 깨우기

### 남중교당 윤석화

제가 지난 1년 동안 남중교당에서 교수단을 이끌며 잠자는 교도 깨우기가 주는 아니었지만 그 일환으로 잠자는 교도 교수를 깨우는 역할을 하였기에 오늘 교도 깨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원불교 바다에 몸을 빠뜨려라고 명시해 보았습니다.

저와 원불교와의 인연은 전타원 윤성규 누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고 윤씨 집안 98%이사이 그 누님으로 인해 일원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도 그 인연으로 그 때 남성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누님이 총부 옆에 사시는 이유로 그 집을 다니면서 총부에 다니게 되고 원불교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머리속에 원불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집안을 이끌면서 강제로 원불교에 나와라, 나오지 마라 한 적은 없지만 그 분의 행동으로 인해 저희들이 일원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원광대학교에 다니면서 첫 교학개설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원대 총장이신 용산 송천은 교무님께서 첫 강의를 하셨는데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강의로 인해 아마 제가 원불교에 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강의 내용 중에서 다섯 번째 '원방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하는 말씀이 순간에 저의 마음에 들어오더라군요. 왜냐하면 남성고에 다닐 때 저도 웬만큼 공부를 하였지만 1차 떨어지고 원대에 와서 보니 세상이 불만이고 내가 여기를 다녀야 하나 하는 관계에 있어 그 강의 그 말씀이 꼭 저를 두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원대에 있는 교우회에 가서 입회를 했어요. 입회 한 1년 후에 어느 일요일, 이리교당에 찾아갔었습니다. 그 때 그 일로 인해 제가 입교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청년 한 분이 오더니 어디 다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 1학년이라고 했더니 생년월일과 이름을 물어보고 다음주에 보자고 하였습니다. 다음 중에 교당에 나갔더니 입교증을 주셨습니다. 그 분이 바로 조도청 선생님이라고 충남 옥천공고에 교사로 있습니다.

제가 그 분을 통해 알게된 것이 입교시키는 사람은 입교자의 이름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입교자는 해주는 사람의 이름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5년 3월에 교우회에 들어와서 원기 56년6월20일자로 교도증을 받았습니다.

4년 전 어느 날 시내에서 우연히 저의 연원인 그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옥천공고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달음에 달려가서 저 모르겠냐고 물어보았는데 그 분은 모른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입교시켜준 사람 이름도 모르냐고 하니 한참을 생각한 후 "아,원광대학교" 하더군요. 그때서야 기억이 난다고요.

그 때 생각했습니다. 입교는 순서, 체면 가릴 것 없이 해야 합니다. 그게 큰 뿌리가 된다고요. 그 뒤에 제가 대학 3학년 되던 해에 남중교당 선교소가 발족하였습니다. 지금 남원중앙교당에 계시는 김성진 교무님께서 남중동 선교소로 처음 오셨는데 그때 제가 원광대학교 교우회 회장때입니다. 지도교수님이신 한기두 교수님, 보조 지도교수님이신 용산 김팔곤 교수님과 함께 창립멤버를 만들자 하여 저와 김팔곤, 권도원 과장님, 현 대한서림 사장, 신성부사장님 이렇게 다섯 명이 창립멤버가 되어서 남중교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뒤 ROTC를 받아 군대를 갔다온 후 대학원에 입학해 대학에 근무하였습니다.

아마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그 당시에 대학에 계신 교무님들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하시는 일이 교무님 답지도 않고 교무님이 저럴 수 있을까, 위선으로 교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대학에서 저렇게 근무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 원불교가 싫어지더군요. 교무님들 보기 싫어서 교당에 안나가야겠다 마음먹고 무려 8년을 교당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때는 저도 잠자는 교도였어요.

그 뒤에 근근히 원불교를 버리지 않고 살짝 살짝 다녀왔습니다.

저는 우리 집 개한테서 견공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 집 개도 자기를 믿고 알아주고 예뻐해 주는 주인을 따릅니다. 그렇듯이 교당에서도 교무님이나 단장과 중앙이 특히 자기 교도들에 대해 믿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챙겨주고 하면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장을 맡으

면서 개가 왜 나를 따를까? 하는 생각에 저도 우리 교도들에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중사님께서 발표하신 술성요론의1조가 ‘사람만 믿지 말고 법을 믿을 지라’입니다.

그정도로 생각하는 교도면 법강항마위급 일 것입니다. 보통 평범한 교도는 대중사님 말씀보다는 교무님 말씀을 따릅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하시게 되는 교도는 아마 교무님 말씀 자체가 대중사님 말씀이라고 생각할 지 몰라도 일반 교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

불교 바다에 몸을 빠뜨리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뒤에 남중교당에 출석률이 좋지 않았지만 근근히 나왔습니다.제가 마음속에 있었어요. 학교 교무님, 총부 교무님, 교당 교무님이 구별이 되었어요. 총부에 다녀가면 신심이 올라갔다 학교 교무님을 보면 신심이 똑 떨어지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교무님들 비판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갈등을 느껴 교당에 나가서도 일체 직책을 맡지 않았습니다. 남중교당을 김성전 교무님을 시작으로 시타원님, 선타원님, 서산님이 계시다 가시고 현재 보타원님이 계시는데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 저의 가족전체가 확연히 일원가족이 되게 하신 분은 선타원 고현정 교감님 이셨습니다. 그 분을 제 친부모님처럼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교당에 잘 나가지 않아서 그 분이 저희 집에 순교를 오셨습니다.

“왜 교당에 잘 열심히 나오지 않지?”라는 질문에 그 일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타원님 말씀이 “운교수, 그럼 지금 전무출신 할 수 있겠어?”하시더군요.“절대 안해요, 못해요” 말씀드렸더니 “그것 봐, 전무출신도 못하면서 전무출신한테 잘못했다고 탈이야? 그거 하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그 사람들이 전무출신도 안 하면 사회에 나가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을 하겠나.”

그 일이 저로서는 대전환기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는 지금까지 전무출신 선생님들께 이상한 생각, 섭섭한 생각, 그 분들이 다른 분에게 잘못되어 보여도 제 눈에 잘못되게 보이는 것도 없어지더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전무출신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었더니 제 마음도 편하더군요. 금방 더 가까워졌습니다. 남중교당 박명제 교감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중앙을 맡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중앙을 맡아야 했느냐면 교수단 전체가 46명으로 여자 1개단, 남자 3개단 해서 4개단입니다. 지난번에 중앙도 하고 단장도 했는데, 어른께서 중앙을 하라고 해서 중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장은 교당 경력도 10년 이상 늦고 대학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된 교도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가 생각했습니다.‘아! 단장은 중앙같이, 중앙은 단장같이 해야 한다’는 뜻이라 생각하고 중앙이지만 단장같이 해야겠구나 마음 먹었습니다.

교당에 만나오는 교수들을 집중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열매는 작년에 맺었지만 시작은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교당에 나오지 않는 교수님 가운데 전무출신 자체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무님께 상의하고 명단을 적어 달라고 항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박도 하고 대자보 써서 불인다는 약간 거짓말도 하고 전무출신 자체가 교당에 만나오면 되겠냐고 달래기도 해서 남중교당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의외로 효과가 좋아 이제는 열심히 나옵니다. 그로 인해 인원이 굉장히 불었습니다. 제가 중앙하면서 2개단 정도가 불어서 2개단이 4개단이 되었습니다.

지년에 교감님께서 “운교수, 이제 단장 하나 맡아야지” 하시기에 꼼꼼히 생각한 후 교감님께 “네, 교감님. 그런데 부탁이 있어요. 교당에 잘 만나오는 사람들로 단을 구성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들을 나오게 하여 모범단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단이 구성되었는데 11명 중에 저하고 중앙 이외에는 전부 잠자는 교도였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단장은 무엇이나? 단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렇다. 교무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조금씩 대종사님 말씀을 꼭 전해야 하는게 단장이다. 요즘에 범죄와의 전쟁을 하듯이 교화에 대한 전사가 되어야겠다. 전사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교화가 안된다.’

법문 중 복중에 가장 큰 복이 인연복이라는 법문을 마음에 새기면서 ‘인연복을 쌓자’하는 생각에 눈만 떠도 앉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종교가 있는냐고 물어봅니다. 없다고 하면 이름과 생년월일을 물어본 후 원불교 입교시키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입교비는 제가 냅니다. 왜냐하면 빛을 주어야 갚으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만나서 교도증을 줍니다.

입교를 시킨 후 강제적으로 교당에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 어디서든지 이 입교증만 가지면 출세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 중에 특히 윤석화란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 교당에 가든지 환영을 받을 수 있으니 보배같이 가지고 있으라고 당부하고 어느 때든지 교당에 나오게 되면 나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사는 교수들은 남중교당으로 나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되면 나오라고 했습니다. 교무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유 없이 믿고 따라야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단원들에게도 불평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교화가 어려운 집단이 교수집단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많고 논리도 정연합니다. 그래서 “교당에 나오면 전공을 별려라. 원불교 교당에서는 신입생이므로 신입생의 마음자세로 교당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2년에 저희 단 11명중에 9명 정도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단원구성을 교수가 5명, 시간 강사 6명입니다. 시간강사 중 두 분을 교수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금년 3월부터 시간 강사 2명 교수 2명 합해서 4명을 저희 단으로 입교를 시켜 현재는 15명이 되었습니다.

저의 수첩에는 그분들의 생년월일, 결혼기념일, 주소, 과, 자녀들 이름, 전공, 보직,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성격, 기호식품 등이 적혀있습니다.

법회에 잘나오지 않는 교도들은 전화를 7번 정도 해야 1번 정도 출석합니다. 단원이 무엇이 급한가, 무엇일도와줄까 하다가 단장은 절대적으로 모범을 보여줘야겠다는 마음에 법회 출석, 4대의무 지키기, 유지비, 월초기도, 보은기도, 재에 100% 참석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법회출석을 시키기 위해 전화를 일주일에 최하 2~3회 합니다. 또한 중앙이 1~2번하여 전부 5번 정도 전화를 합니다.

저는 낮에는 업무상 바쁜 관계로 아침에는 6시, 저녁에는 11시~12시에 합니다. 전화를 너무 많이 하니까 없다고도 합니다. 없다고 하면 통화할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합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전화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끈끄러운 마음도 부끄러운 마음도 없었습니다.

통화가 되면 먼저 그 집 애기 이름을 부르면서 시험은 잘 보았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시시콜콜하게 시작하여 일단 거부감을 적게 하였다가 뜬을 들이고서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때는 새벽과 저녁에 전화 좀 하지 말라고 학교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법회 출석 잘하면 전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전화를 합니다. 지금은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짜증도 나고 자기를 위해 하는 일이라 화도 못내고 섭섭하고 자다가도 화가 났답니다. 한 번하고 두 번 하고 일년 내내 나올 때까지 하니까 나중에는 그 덕으로 열심히 다닌다고 저에게 감사하다고 합니다.

아침 6시에 전화를 해서 교당 가실 건가요 물어봅니다. 항상 막둥이처럼 대답은 다 잘들

합니다. 그런데 안나오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10시에 법회이므로 9시 반쯤 차를 가지고 아파트 벨을 눌러 데리고 교당으로 가고 끝나면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에 또 안나오면 전호하고 데리러 가고 데려다 줍니다. 그 사람이 법회에 습관이 될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6시전에 우리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직접 갈테니 데리러 오지 말라고요.

교수님들이라 자존심도 강하지만 원불교 쪽에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지요.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하니 법회출석이 잘 되었습니다. 저는 즐거웠습니다. 한 사람 안 나오는 사람을 나오게 하는 것은 아마 해보신 분이나 그 기분을 아실 겁니다.

법회 출석 후 출석카드를 점검 체크하여 월, 화요일 중에 학교로 전화를 걸어 확인을 받고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적어서 화요일 저녁이나 수요일에 교무님께 제출합니다. 또한 순교가 필요한 집은 빨간 글씨로 순교 갔다 오시라고 적어 줍니다. 순교를 다녀오는 것하고 전화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저희 단원중에는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남중교당에 오면 잘 된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런지 강사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잘 되었습니다. 남중교당에 와서 90%이상이다 잘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교당에 나왔을 때 제가 도와주었던 것은 교수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강사분들이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전라북도 있는 어느 대학이라도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입료를 시켜 교수가 된 사람이 20여분 되는데 전라북도내 전문대학과 저희 원광대학, 원광보건대학에 저의 연원으로 교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교당에서 교도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단장이 단원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지 않으면 단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어야 합니다. 전 단원의 생일날은 꼭 챙깁니다. 수첩에 깨알같이 적어 놓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해서 점심약속을 합니다. 그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 오늘 귀빠진 날이지 ”하면 기억한다는 그 자체로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신심이 더욱 굳어집니다. 또한 자녀들 이름을 기억하여 불러주는 것이 교당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단회나 법회 때마다 단원들에게 교도 사종의 의무를 알려줍니다. 유지비는 얼마를 내야한다고 설명해주고 신심이 더 굳으면 더 많이 내고 그래도 저보다는 많이 내지 말라고 합니다. 단장인 저보다 많이 내면 안되잖아요. 월초기도비, 육영장학회(남중교당에 육영장학회가 있습니다.)비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단원들에게 상시일기를 꼭 쓰도록 지도합니다. 저도 단원들 때문에 사이 일기를 씁니다. 단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씁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두 번이라든지 가리지 말고 쓰라고 합니다. 한 10년 쓰면 매일 빠지지 않고 쓰지 않겠느냐고 설명합니다. 일주이내내 만나면 목표가 교당이므로 교당으로 오도록 지도합니다.

그 사람들은 저에게 동화가 되었는지 , 제 체면 때문이지는 모르지만 아래와 같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에 남중교당에서는 법회를 두 번 봅니다. 1부 법회는 오전 6시, 2부 법회는 오전 10시, 저는 그 날을 단회하는 날로 정해서 오전 7시 10분에 단회를 하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단회는 교화지침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부 법회를 참석 못하시는 분은 단회와 식사를 하시고 가십니다. 언제든지 단회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의 결과가 남중교당에서 주어지는 1년 결산 상 6개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교수단 남자 10단이 다섯 개를 받았습니다. 남자 10개단 여자 26개단 중 저희 단이 최우수

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의 개인 성적은 400명 이상 교도 중에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작년에는 2등을 했는데 작년에는 교도님들 덕분에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 결석 인원수가 제일 많은 법회 출석은 특등상을, 한번도 빠지지 않고 단원이 가장 많이 참석한 상인 단회상은 우수상을, 우리 단의 입교 인원이 200명 가까이 되어 입교상 2등을 받았습니다. 저의 금년 목표는 11명이 15명이 된 저희 단에 아직도 나오시지 않는 분을 찾아서 5명만 더 늘려 내년에는 두 단으로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남중교당을 떠나서 대학교당에도 매년 최하 20명 이상을 시키고 있고 작년에는 49명, 남중교당에 96명을 입교시켰습니다. 입교하는데도 노하우가 있는데, 저희 대학교수는 500여명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교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상오르 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우가 나타납니다.

첫째, 문상만 다녀오는 경우

둘째, 문상 다녀오고 발인식도 참석하는 경우

셋째, 3일 문상에 발인식도 참석하고 장지까지 같이 갔다오는 경우

넷째, 3일 문상에 발인식, 장지, 49재도 참석하는 경우

그리고 다섯째, 3일 문상, 발인식, 장지 49재도 참석하고 매년 추모일을 기억하여 참여하던지 전화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 전화하는 경우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여러분이라면 어느 경우가 제일 감동을 받을 것 같나요?

저는 다섯 째의 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장지까지 갔다 왔을 때 그 교수는 만날 때마다 기억을 합니다. 저의 목적은 교당에 법회 출석하는 것이므로 그럴 때마다 교당 법회에 참석하세요 하고 권유하면 저의 체면 때문이라도 교당에 꼭 참석합니다.

그럼 분이 많이 계십니다. 두 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미국에서 석. 박사학위를 받고 저희 대학 영문과 교수가 되신 분인데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 분은 교수가 된 후 1년 반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분은 원불교를 믿었지만 가족 전체가 천주교 집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신 관계로 자의 절차를 논의하였습니다. 가족은 천주교였지만 그 교수는 신심이 독하지 않는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제가 교수로 추천하면서 “원광대학교수가 되려고 하면 나를 따라서 원불교 공부를 합시다. 그 공부를 하면 내가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지 못합니다.”라고 해서 입교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교당도 열심히 나오고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장의 절차 문제 때문에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불교식으로 하면 제가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가족들을 가족회의를 하고 나서 제가 하자는 데로 따라서 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을 위해 장의 절차를 밟자고 하면서 원불교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남중교당과 대학교당에서 독경을 하고 장지도 영모원으로 모셨습니다.

그 일이 끝나니까 자의 절차를 보았던 가족들이 다 원불교에 입교하여 일원가족이 되었습니다. 장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부인을 박사과정에 입학을 시켜 현재 저희 어학원에 전임교수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원불교로 인도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분을 교수로 만들려고 생각중입니다. 가족들의 뿌리로 딸들도 입교하여 교당에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의대교수인데 전혀 종교가 달랐습니다. 영안실에 안치되었는데 가족들이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모아놓고 원불교 식으로 하자고 권유하고 남중 교당과 대학교당에 부탁했습니다. 또한 49재를 남중교당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덕으로 본인은 물론 본인 가족, 친척들도 함열 교당에 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문상에 대한 것은 단원들뿐만 아니라 단장, 중앙 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참석한다면 더 많은 교도들을 교당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걸쳐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램이 하나 있습니다. 남중교당 뿐만 아니라 다른 교당에도 법회출석을 시킵니다. 어디 살고 있느냐고 물어보아서 제일 아파트에 산다 하면 영등교당으로 어야동이면 어양교당으로 하여 가까운 교당으로 안내합니다. 그렇지만 챙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군요. 서떡거리서 다니기 힘들다고 그 분들은 이야기 합니다. 결국 남중 교당으로 오게되어 열심히 다닙니다. 각 교당에서는 교수들이 나오면 챙겨주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동안의 8년 놀았던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나부터 변하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당은 교도 중심 아닙니까? 사실은 교무중심인데요.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 때 고객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고객만족시대도 고객감동시대도 지났습니다. 오직 지금은 고객을 졸도시킬 정도로 해야 상품이 잘 팔립니다.

저희 단원이 저를 통해서 졸도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여 단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제가 법회를 보다보면 법회를 열심히 참석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3~4번 정도 참석하게 되더군요. 수요일 대학법회, 목요일 대학생법회(원불교 대학생회 지도교수), 남중교당에서는 1부, 2부 법회를 볼 때가 있습니다. 평균 2~3번 정도는 매주 보고 네 번 볼 때도 있습니다.

제가 남중교당에서 첫째주, 셋째주는 고정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법회에 가야 단원들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같이 사회 보는 교도가 아파서 3개월 동안 혼자 사회를 보았습니다. 사회르 보아야 하기에 결석 한번도 하지 않고 법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물론 지난 1년간 대학교당도 남중 교당 법회도 한 번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단원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단장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달라지더군요. 먼저 모범을 보인 제가 부탁을 드리면 잘 따라옵니다.

지난 일요일에 남중교당에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다리를 다쳐 성지순례를 도저히 갈 수 없었습니다. 6시 법회를 보고 8시에 출발하는데 갔다와서 몇 번 망설였습니다. 갈까 말까 하다가 버스에 앉아있더라도 가야했기에 갔다왔습니다. 갔다 왔다고 했더니 단원들이 제가 당연히 갔다 왔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입교에 있어 연원 달기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제자 교수가 한 명 있었는데 원광보건대학교 교수가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보건대학에 있는 교수단에서 이 교수를 자기 단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전문대학 교무님, 전문대학 교도 교수님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건 양보해도 연원은 양보하지 못합니다. 잘 길러 확실한 교도가 되면 그 쪽 단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 인연을 닿는 분들이 “어쩌다가 윤석화 교수 연원을 달아 참 다행이다”라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현재 남중교당 육성장학회 초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육영장학회를 활성화 시켜 총부 장학회 못지 않게 기금도 많이 마련해 남중교당에서 고생하고 가신 간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 대한 후생복지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지원을 하려고 육영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잠자는 교도가 이웃 주변에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틀림없이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 순교

### 영등교당 박우경

올해 원불교에서는 일인일도 인도 실행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화에 초점을 두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교구에서도 1010 서울 동네 교화 및 잠자는 교도 깨우기를 합니다.

교구에서는 각 교당마다 동네 교화 위원을 선정하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교화력 증진 훈련을 실시하고, 각 교당에서는 나름대로, 또는 다른 교당과 합동으로 단장, 중앙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서울 교구장님이나 교무님들께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무님들은 당연히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재가 교도님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한 분 한 분이 재가 교역자가 돼서 재가 교역자 역할을 다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재가 교역자 역할을 하려면 자 자신부터 법신불 사인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념, 대중사님 교법에 대한 투철한 신심이 있어서 내 마음부터 살아서 뜨겁게 불타고 있어야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장작불이 뜨겁게 활활 탈 때는 그 옆을 슬쩍만 스쳐도 그 불이 옮겨지고 열기가 전해지지만 꺼진 불에는 아무리 불을 붙이려 해도 붙지 않고 열기가 전해지지 않듯이 나 자신부터 법신불 사인에 대한 믿음과 대중사님 교법에 대한 신심이 투철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사님께서는 인과품 16장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천만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 주고 천만가지 선(善)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부터 이 말씀을 믿고 깨달아야 되겠고, 대중사님도 이 교법을 펴실 때 즉 우리 원불교라는 새 회상을 펴실 때 개교의 동기에 잘 밝혀 주셨습니다.

“물질의 노예생활로 파란고해에 헤매는 이 중생들을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 받아 파란고해의 일체생명을 광대 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라고 밝혀주셨듯이 이 말씀을 믿고 깨닫고 실천에 옮겨질 때 확실한 교화를 할 수 있고 힘있는 교화, 자신 있는 교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제 자신이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리에 신분의성 진행 4조의 맨 앞에 신을 놓아주신 것도 우선 믿는 마음이 있어야 분발심이 나고 거기에서 의심이 나고 정성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신을 맨 앞에 놓아주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교화를 하고 싶고 순교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무님께서 “우경님, 어디 순교를 좀 갑시다” 하면 저는 정말 열일을 쳐쳐놓고 따라 나섭니다. 김치를 담다말고, 설거지는 하다 말고 갑니다.

언젠가 한번은 제가 몸이 아파 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종합병원 예약이 쉽지 않습니다. 예약을 어렵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무님께서 “순교 좀 갑시다”해서 제가 병원에 예약을 취소하고 교무님을 따라나선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순교하고 교화하고 해서 한 분이라도 대중사님의 교법과 이렇게 인연을 맺게 해주려고 순교를 하고 있는데, 순교는 방문순교와 편지를 띄워 하는 편지 순교를 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전화 순교입니다.

교화를 하는데 첫째는 진리에 대한 신심과 대중사님 교법에 대한 믿음과 신심과 정성이 있

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리에서는 신분의성 맨 마지막 성에서 “ 성이라 함은 간단없는 마음을 이룸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그 목적을 달하게 하는 원동력이니라.”라고 말씀하셨고, 대산 상산님께서서는 “정성이 곧 능력이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정성에 대해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정말 정성이란 끊임없이 간단없이 챙기고 챙기고 또 챙겨서 저희 단원들이 입교해서 신심이나 공심이 생기고 공부심이 생기고 교당의 주인이 되고 교단의 주인이 되고 회상의 주인이 되기까지 챙겨주는 그 마음이 정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동교당에서 원기 77년도에 저에게 정진단이라는 단을 새로 조직해서 맡겨 주셨습니다. 현재 6~7년째 단장을 맡고 있는데 저에게 단원들을 맡겨 주실 당시에는 새로 입교한 교도, 잠자는 교도, 다른 교당에서 옮겨와서 진심이 별로 없는 교도, 한 마디로 꼭 제가 챙겨야만 되는 단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과연 제 능력으로 이 단원들을 끝까지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단장을 하려면 목표와 표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어떠한 단원을 주시던지 제가 끝까지 챙겨서 우리 영동교당 주인을 만들어 보리라’라는 목표를 세웠구요.

또 표준은 ‘몸은 하인이 되고 마음은 주인이 되어 항상 아쉬운 입장에서 단원들을 챙기고 또 챙겨서 끝내 영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까지 챙겨보리라’ 라는 커다란 표준을 세웠습니다. 단장을 하다 보면 외 어려운 일일 없겠습니까. 그래서 경계가 닥칠때는 법신불 사문에 대한 믿음과 대종사님 교법에 대한 신심과 정성이 없어서는 금방 포기하고 자포자기 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표준을 세우고 단원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화단 지침서에 보시면 매주 화요일에는 단원들의 결석 사유를 알아서 교무님께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는 화요일은 물론이고 토요일에 전화를 한 번 더 합니다. 혹시 그 동안에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나? 또 다른 약속을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나? 해서 전화를 토요일쯤하고 만일에 토요일에 전화 통화를 못했을 경우에는 일요일날 아침에 나가는 순간까지도 통화를 해서 ‘지금 법회 준비하는 중이지요?’ ‘지금 법회 나가려고 하시죠?’하고 밝은 목소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단원들은 그렇게 하면 거절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전화를 하면 거절을 못하고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단회 때는 교화단 지침서를 미리 미리 연마를 합니다. 단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단원들보다 먼저 알아야 하고 이끌어 가는 데 막힘이 없어야 되겠더군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관련법문이라든가 성가라든가 또는 회화내용을 미리 미리 연마를 합니다. 처음 나오는 교도나 신심없는 교도는 회화시간에도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유도를 해서 입을 열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도 그때는 말을 잘 하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은 저의 목표대로 전화를 하지 않아도 다 출석을 합니다.

영동교당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단회를 할 때는 1년에 꼭 한 두 번 정도는 저희 집에서 단회를 합니다. 대부분 단장님들이나 단원님들께서 집에서 단회를 한다면 굉장히 부담감을 갖습니다. 집도 좁고, 사실 저희 집도 좁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산종사법어 유혹편 29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대인이 될 소질이 없지 않나니, 마음을 키우고 국을 더 넓혀서 대인 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라. 몸은 작아도 마음이 크면 대인이요, 몸은 커도 마음이 작으면 소인이니라.”

저는 제 나름대로 집은 좁아도 마음이 크면 부자니라 생각하고 비록 집은 좁지만은 단원들

을 다 초대합니다. 제가 매년 연초에 단회를 할 때마다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하고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가격은 3,000원 정도해서 크지 않습니다. 교구 봉공회 활동하고 교당 봉공회 회장으로 교구 봉공회 임원으로 원음 합창으로 여러 가지 뛰다 보니까 낮에는 사실 정성스레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밤에 시장을 봐다가 밤 1시고 2시고 음식준비를 하고 선물을 예쁘게 싸고 그러면 남편이 옆에서 볼 때 자기는 한참 자다가 일어나서 보면 저는 잠을 안자고 1시 2시 3시 될 때까지 준비를 하고 있으면, “잠을 안자고 있느냐고, 그렇지만 당신 단원들은 굉장히 행복 하겠다고 이 예쁜 선물을 받는 순간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럴 때 ‘일원 가족이 먼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장을 하려면 조금은 폰수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터득했습니다. 폰수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별로 자존심을 깎이지 않고 해나가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가 법회를 끝나고 나면은 노래방도 가끔씩 가고 가을이 되면 낙엽도 같이 밟고, 한번은 다들 어려운 시간이지만 어렵게 시간을 내어 양평 콘도 가서 일박을 하면서 단회를 했습니다. 물론 모든 준비는 제가합니다.

저는 제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단원들을 챙기고 우리 대종사님 교법과 인연을 맺게 하기 위해서 굳은 일, 봉사 이런 것은 다른 사람 귀찮게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제가하고 있는 만큼 다 나와서 신심생겨 공심생겨 공부심 생겨서 영동교당에 교단에 회상의 주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합니다.

잠을 같이 자다 보면은 이렇게 단회를 1부 산뜻하게 하고 2부에 가서 서로의 가정사와 그 동안에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와 하기 싫은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룻밤 자면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그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에 오니까 저희 단원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일단은 연말에 가서 저희 단이 , 그렇게 약했던 단이 제일 처음 그야말로 흩어진 단을 모아서 만들어진 단이 제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무님께서서는 “정진단이 없으면 영동교당을 운영해 나갈 수 없가”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교무님과 단장인 저와 단원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재미있게 해 나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다 신심이 나니까 이제는 교무님께서 욕심을 내십니다.

교무님 표현으로 하면 이 단원들을 다른 곳에 분양을 시키신다고 하시더군요. 분양을 시키고 또 새 단원을 저희단에 넣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일단은 처음에는 신심이 없는 교도님들이었기 때문에 다 보낼 수 없고 두 명만 다른 단으로 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저희 단에 넣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금년에는 다섯 명을 다른 단으로 한꺼번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에 한 명 한 명, 새로운 사람을 저희 단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 단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전화를 하고 어떨 때는 편지를 띄웁니다. 전화를 해서 제 소개를 하고 또 교당에 나오도록 하는데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신심이 살아나서 그러는지 항상 가슴이 불타고 있어서 그러는지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마다 음성이 밝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제가 전화를 하면 거부하지 않고 어떻게 어떻게 하여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다 나오도록 합니다.

더러는 절 더러 물귀신이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한 번 인연이 되어지고 이 사람을 챙겨야 되겠다 싶으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교무님 모시고 그 집에 방문도 합니다.

금년에는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저희 집에서 단회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초 한 쌍을 사서 예쁜 메모지에 잘나오는 사람은 나오는 데로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대로 근기에 맞게 메모를

다 했습니다. 메모를 하고 선물을 예쁘게 포장하여 나눠주니까 별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좋아하고 메모를 읽는 순간마다 어찌면 나에게 맞는 말을 썼느냐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성은 드린 만큼 되어지는 구나 라는 실감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원기 81년도에는 원음합창단 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합창단이 조금 위기였습니다. 몸이 아파서 단장을 해달라고 했을 때 맡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 내 한 몸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한 번 해보자’ 해서 단장을 했더니 제가 한 20명 이상의 잠자는 단원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단원을 깨울 때마다 전화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아침에는 전화를 하느라고 남편 밥상을 차려주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주부님들이 너무 너무 바빠요. 바빠서 10시 넘으면 다 나가고 없습니다. 8시 넘어서 10시에 50통화 이상씩을 하다보면 남편 밥상을 못 차려 주면 남편이 자기 혼자서 식은 밥 찾아서 물을 말아먹고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줍니다. 그렇게 교화활동 하는 제가 대견한가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저를 교화해서 아내로 맞았거든요. 저의 남편의 연원인데요. 처음에 결혼하기 전 선을 보는데 자기는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답니다. 그저 원불교 다니거나 앞으로 원불교를 다닐 사람이면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원불교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첫인상이 어떠냐고 물어보더군요. 저의 남편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얼굴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 순간에 첫인상인 얼굴은 안 보이고 손만 보이더군요. 손이 포동포동하여 너무 너무 예뻐했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하면 제가 대중사님의 법을 만나기 위해서 다 가려서 그랬는가 싶습니다.

지금은 저희 남편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지금 어느 미남인 남편보다 훨씬 너무 멋있게 보입니다. 그 정도로 ‘모든 일에 적극적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원들이 다 출석이 되고 지금도 5명을 다른 단으로 보냈지만 그 단원들이 그 약한 단에 가서 다시 ‘주축이 되어 단을 이끌어 가는 것을 보고 또 자기 가족이 일원가족이 안되었던 남편을 또 다시 교당으로 데려오고 남편이 친구를 데려오고 그래서 갑자기 교당 인원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까지 저도 경계가 없었나 하면 그건 아닙니다.

사리연구에 보면 대소유무의 이치로 건설되고 인간의 시비이해의 일로써 운전해 간다 했는데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항상 시비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한 것은 제가 법문을 좋아합니다. 그렇 때 얼른 마음대조를 합니다. 마음대조를 하면서 무시선 법에 보면은 모든 경계를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슬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이 말씀을 대조하면서 또 법문을 보니까

“숙종의 가치를 상설이 드러내듯이 공부인의 가치는 순역 경계가 드러내나니, 각자에게 난관이 있는 땐 교중에 난관이 있는 때에 그 신앙의 가치가 더 드러나고 그 공부의 가치가 더 드러나나니라. 국가에서 군인을 양성하는 것은 유사시에 쓰자는 것이요 도인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경계를 당하여 마음 실력을 활용하자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더군요. ‘그래 맞아, 도를 이루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나 혼자 내 도를 이루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단원들을 인도해서 도를 이루게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드나, 이게 단원들이 나에게 주는 경계로구나, 포기하고 좌절하면 내 목적을 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마음을 챙기고 돌려 교당에 가서 그 단원을 보면 더 반갑게 챙겨주곤 합니다.

저는 서울교구에서 단장 . 중앙 훈련 때 불려가서 사례 발표를 여러 번 했습니다.

다른 단에 간 단원들까지도 현재 단장님을 먼저 모시고 자해야 되는데 저만 기다리고 제가 다른 교당에 가서 법회를 보고 오면 교무님께서

“정말 너무해요. 정진단원들은요. 단장님 없다고 법회 2층에서 보고 끝나면 밥도 안 먹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나가요.” 그렇다고 제가 더디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그만 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없으면 단원들이 힘을 못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던 단원들도 이제는 교무님과 저와 하나가 되어 교당에서 굳은 일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보니 인과는 어디로 안 가더군요 지은 데로 받게 됩니다.

단원들을 마음으로 챙기고 선물로 챙기고 음식으로 챙기고 했더니 연말에는 단원들도 저를 준다고 서로 돈을 건어서 선물은 사고, 제 것만 산 것이 아니라 남편 것까지 샀습니다.

남편은 좋아서 각시를 잘 두니까 나까지 호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물을 받더군요.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봉공활동하고 여러 가지 교화 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단원들이 볼 때는 좀 쉬었으면 할 때가 있나봅니다. 제가 안쓰러워 보이냐 봐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하며 쉬어 가면서 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죽으면 썩을 몸.

대종사님께서서는 만사만리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물론 몸이 있어야 성불도 하고 제중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일을 함으로써 제가 건강해짐을 느낍니다.

유관순 열사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는데 내 한 몸 교당과 교단을 위해서 회상을 위해서 바친다면 그런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대종경 요훈품 21장에 말씀하시길

“중생은 영리하게 제 일만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이 해를 보고, 불보살은 어리석게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 자기의 이익이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단원들이 처음에 오면 전화를 수도 없이 합니다. 전화를 할 때마다 조금 귀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에 의해 입교를 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지만 가랑비에 비 젖듯, 콩나물에 물주면 크는지 모르게 커가듯이 이런 마음이 날 때까지 남편이 챙겨 주니까 제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의 단원들도 아마 지금 신심이 난 단원들은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금년에 7명이라는 새 단원을 주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챙기다 보면 언젠가는 그 단원들도 저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저는 앞으로도 교화단 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고 건강이 주어지는 한 열심히 순교를 하다 교화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교화단 활동

### 대연교당 류종형

저는 부산교구 대연교당 제4교화단 단장 류종형입니다. 어젯밤에 하도 걱정이 되어서 잠이 오지 않더군요. 밤 11시쯤 되어서 자리에 누웠는데 뒤척거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제는 새벽 4시가 채 안되어서 눈이 딱 더지더군요. 부산에서 익산까지 와야 된다는 의무감도 있고 또 준비를 제대로 못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걱정도 되고 해서 새벽 4시에 깬습니다. 4시에 깨서 4시반 정도에 출발을 해서 충부 앞에 도착하니 9시 반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시간에 충부에 먼저 들어갈 수는 없고 목욕이나 좀 하고 가자’ 생각하고 옆에 목욕탕이 있어서 목욕을 하고 왔습니다. 나와서 제 얼굴을 보니까 단장이 아닌 것 같더군요.

저는 사실 보통의 삶을 구가하는 대다수의 남자들과 비슷하게 많이 흔들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제 나이 네 살 때, 열살 때 교당에 온 기억이 있고, 열살 되던 원기 49년에 어머니에 의해 원불교에 입교를 했습니다. 원불교 입교 나이로 보면 굉장히 오래 됐지요. 그래서 학창 회를 잠시 다녔고 청년회를 거쳐서 일반법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회출석을 등한시해서 늘 어머니이신 대연교당 선타원 백선경 법사님께 꾸중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저 역시도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또는 지식으로 타인에 앞서고 싶은 사람이 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TV는 잘 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보지 않습니다. TV는 보지 않아도 책 읽는 것은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잡서는 다 읽었습니다. 닥치는 데로 막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일찍 집에 와보니까 책꽂이에 제가 볼만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책 없을 때 보는 것이 교전 아납니까? 교전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선진님들께서 쓴 책을 그 당시 저는 먼지떨이 정도로 보았지요. 일게되니까 실제로 나이 들면서 알고 싶고 배워야 될 것. 또 알고 지내야 될 것 등 모든 지식들이 거기에 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책에 좋은 말이 있으면 그것을 다 외웁니다. 남들 앞에 서서는 그것 아는 것을 지식이라 생각하고 자랑삼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 인간이 안다는 것이 장님은 코끼리를 세 부분으로 이야기했지만 인간이 안다는 것은 그 코끼리 발톱에 낀 먼지 한 알갱이밖에 안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큰 무슨 자랑인양 했습니다.

그 때 도 많이 봤던 것이 절에 스님들 책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죠 우리 교전에도 나오니다. 금강경 마지막 구절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니 약견제상이 비상이면 즉견여래라.’ 그 전에는 그 구절이 어디에 있는 것도 모르고 참 좋아서 외우고 다녔는데 우리 교전에 다 나오더군요. 그래서 ‘아, 우리 책도 읽고 우리 교법에 좀더 가까이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사무실까지 거리가 차량운전으로 약 40분 가량 거립니다. 집은 대연동이고 사무실은 구포입니다. 구포까지 40분 거리를 혼자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이 운전이라는 것이 얇전한 사람도 욕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막 끼어들면 “짜식이...” 이런 식으로 욕을 참 많이 하였고 저도 투덜거리기를 워낙 좋아했습니다. 매일 아침 40분 동안에 그러다가 이래서는 날부터인가 아, 이 시간에 독경을 하고 다니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차에는 목탁 대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핸들이고 뒤편에 두드리면서 독경을 합니다. 독경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 40분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차가 좀 밀리면 참 오늘 많이 하게 생겨서 좋다. 좀 빨리 가면 아쉬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든든하고, 내가 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운전을 하고 다니면 절대로 사고는 나지 않을 것이다. 법신불 사은님께서 지켜주는 그 독경을 하고 다니는데 무슨 사고가 나겠느냐? 안난다. 그렇게 독경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운전버릇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보통 100~120Km 달리던 운전속도가 80Km 정도로 줄었습니다. 천천히 가면서 해야 속도도 맞고 하다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것을 저 혼자만 생각하니까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당에 가타원 조영진 교무님께 저녁식사 할 자리가 있어 한 번 말씀드릴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하고 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무님께서 “ 법회 감상당 시간에 한 번 발표해봐” 하셔서 한 번 발표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교당 일이라면 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부교무님 두 분이 해가 바뀌고 청소년 법회 유년법회 전용을 하다보니까 일요일이 좀 바쁩니다. 저는 사회를 4번 다

됩니다. 못하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기원문 작성에서부터 사회준비를 하다보면 어떤 때는 밀리기도 하고 짜증스럽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 온지가 어느새 한 2년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무님께서도 r당의 크고 작은 일이든지 교구 일이든지 막 시키십니다. 도 우리 교당을 인제는 없고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일을 나와 하다보면 자꾸 시킵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을 안하고 계속 따라오다 보니까 아마 제가 이 자리가 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법, 선문에서 말하죠. 제가 공부를 좀 하려고 생각할 때 우리 교무님이 지도를 잘 해주셔서 선문에서는 줄탁지기라고 그러니까? 그런 시절 인연이 좀 있었던 것인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국적으로 수 만개 교화단이 있고 그 중에서는 정말 재미있고 멋있게 이끌어갈 단장님이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부와 이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셔서 정말로 영생을 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되지도 못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교화단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다 보니까 참 영광스러운 마음이 가득한 반면에 송구스러움은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2년여 동안 어머니가 선타원 법사님이 되셨고 아버님이 법호를 받으셨고 그리고 형님이 법호를 받았습니다. 원불교신문에도 났습니다. 형님이 원불교 신문에 글을 두 번이나 썼는데 한번은 집을 해운대로 옮기면서 교당 옮긴다고 한번 썼고 4월 11자 신문에는 '원불교 명문가를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한번 했더군요. 그런 집안에 제가 막내인데 그래도 좀 법을 아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모시고 또 사실은 저보다 제 집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생활도 참 잘합니다. 그 사람과 우리 교당에 법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법사위에 오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제가 법회 사회를 계속 봐 오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강원도 속초에서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법을 집행하고 있었는데 한 6~700명 앉혀 놓고 떨지 않고 이야기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을 전문으로 하고 또 교화단에 대해서 확실히 다 아시는 분들 앞에서 실력이 모자란 사람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마음이 두근두근 하고 잘 안되더군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불철주야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최일선에서 제생의세의 힘을 다하시는 우리 교무님들한테, 우리 단장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부산에서 멀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 교화단 인적사항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단장을 원기 75년도에 맡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8년 전이죠. 그 당시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에 이르는 부부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출발부터 부부단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 단원들이 청년기를 벗어나지 못해서 법회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도 법회출석을 등한시 하다보니까 교무님께서도 카트, 또 개인 사정으로 79년도에 단장직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80년도에 저의 후임 단장이 인천으로 발령을 받아 가는 바람에 80년 가을부터 제가 단장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 저희 교화단은 11부부 22명의 단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통 5~6명 많으면 7~8명만 법회에 오고 나머지는 "법회? 응! 나는 원불교 교도인데 법회하고는 모른다." 이런 실정이 참 많았습니다. 작년 원기 82년부터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하다보니까 늘었는데 단을 나누자 하여 남자는 4단 여자는 5단으로 분리해 운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단회, 활동, 전부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통합해 말씀드리면 30대에서 40대 중반에 이르는 18쌍 36명의 단원이 저희 단원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을 한 3년 정도 들었

는데 한번도 안나오는 친구가 한 5팀 정도 있습니다. 빼고 나면 13팀 26명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명, 6명, 7명 나오던 단원들이 26명중에서 4월 말 법회에 20명이 왔습니다. 한 단에서 그리고 5월 첫 법회출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발전을 한 셈이죠.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13쌍 부부 중 절반 정도인 7쌍의 부부가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청년회나 학생회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당생활에 익숙해져 있어 조금 젊지만 법회출석이 그리 어렵지 않고 더하여 배우자 남편이나 부인을 교당으로 안내하기가 좀 쉬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미래를 생각하면 청소년 교화에 좀 더 세심하면서도 정성스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교화단에 인원이 많은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단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학생회나 청년회 출신을 일반에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청년활동 당시에는 제법 교당 일 열심히 하고 교당 생활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인가는 교당에 나오지 아니하고 연락조차 없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청운회가 결성되어 있으나 저희가 어렸을 적에는 청운회의 힘이 참 미약해서 저희들을 흡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 행각에 좋은 선배들이 일반법회와 왜 연결이 잘 안될까? 이 생각으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 자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생활을 강원도 속초에서 한 3년 하다보니까 딱 떨어져 있었습시다만 남자는 군대문제, 그리고 직장 초년의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으로 갖추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욕망 이런 것들과 여자는 가정의 안주가 아마 교당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번쯤 교당에 오다보면 아는 얼굴이나 반가운 얼굴이 없는 꼭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서 느끼는 어색한 기분을 느끼다 보니까 교당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우리 교당 청년회 출신들이 제 나이 또래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거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 중 누구라도 여기에서 주인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돌아가면서 직장 생활해도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테니까 여기서 모인 하나 만들자.' 그래서 친목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누가와도 우리 중에 반갑게 손잡아 주면서 "아이고! 선배님, 후배님 오셨습니까?" 하고 해 줄 수 있는 주인되는 이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끼리는 '원성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교당이 1층 신축을 해 놓고 나서 2층 증축을 했습니다. 그 때 저도 그랬습시다만 교당 청년회에서 만났거나 신심있고 인연있는 청년들이 교당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식장을 빌리고 그럴 것 없이 교당에서 법회 마치고 바로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한 몇 팀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 "우리가 생활이 바쁘고 지치더라도 한 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날짜를 맞춰 같이 갔다 오고 하여 이렇게 지내온지가 한 15년 되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활 따라 왔다 갔다 하다가도 그 15팀, 총 지나가기는 40여 팀이 저희들 모임을 지나갔는데 그들 중에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6팀이 우리 교화단에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까 우리 오도철 교무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통영교당에 가서 잘 있다고 안부하는 사람도 있고 일선교당에서 생활 잘 하고 있다는 여러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같이 훈련을 하다보니까 교당에서 뒤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되어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은 젊습시다만 우리 단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화단은 바탕있고 젊음이 있으니까 군대로 말하면 사관학교다. 그리고 대연교당의 주인들이다. 그래서 법회 출석만 하고 돌아가는 일반 교도님들과 달리 대연교당의 미래, 나아가 교단의 미래는 우리한테 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마 거기에는 그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단장을 맡고 난 다음에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을 두 번째 맡고 나서 보니까 문제는 저희들보다는 아직은 어린 단원들, 학생 청년회 출신이거나 입교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단원들, 아주 초입단원들의 신심 만들기였습니다. 일반사람들은 보통 일요일은 집에서 쉬는 것으로 작을 삼고 TV시청이나 낮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기껏 등산, 낚시로 하루를 무료하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단원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당에 왔다 가더라도 오후에는 상당히 무료하게 지내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법회가면 시간이 어중간하여 법회에 안가고 차라리 낚시를 가던지 등산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활용해 주어야 하겠다 거기에 요점을 두었습니다.

법회를 마치고 나면 함께 모여서 어떻게 보낼까 하는 궁리를 참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교당까지 걸어서 한 20~25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200m가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법회만 마치면 모두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집으로 끌고 가서 쉽게 할 수 있는 식사와 커피, 과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젊은 단원들이라 애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 마당이 손바닥만한게 있으니까 애들은 거기서 놀게 했지요. 그리고 부부들은 이야기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법회를 마치고 단장이라 요인회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을 하고 집에 가니까 집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보니까 문 앞에 짜장면 그릇이 17개가 있더군요. 주인도 없는데 저희들끼리 와서 다 시켜먹고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 참 대단한 살들이다, 그렇게 좀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지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화라는 것이 주로 서로의 사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생활들에 대해 이야기를 주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용이 많이 바뀌어서 교법과 생활대조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진행된다는 것이 아마 큰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집을 옮긴지 한 8개월밖에 안 되는데 저희 단원들이 우리집을 작은 교당이라 했습니다. 법회 마치고 나면 “ 큰 교당에서 마쳤으니까, 이제 작은 교당 가자”하며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로 옮기고 보니까 불편하고 시끄럽고 그러는지 그렇게 많이는 안 옵니다. 그래도 집에 와서 자고 가고 그러는 사람이 서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오면 한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음식이고 설거지고 통 물을 손에 안댑니다. 아까 그 모임 당시 어디를 가면 남자들이 밥하는 것부터 설거지하는 것까지 책임지고 다했습니다. 그 버릇을 딱 들여왔더니, 제가 먼저 합니다. 주구보고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제가 먼저 손을 걷고 들어가서 쌀을 씻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야! 일요일은 마누라 사랑하는 날, 마누라는 쉬게 해주고 남자들이 해도 되다. 이거 뭐 못할 것이 뭐 있자?”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청년회 출신의 갓 입교한 부부들이 원불교가 이렇게 열려있나 그래서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부인들도 집에 가서 “우리 단장님 집에 가면 잘하는데 여기서 왜 안 하나”하고 남자 시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집안 생활이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저한테 인사도 많이 합니다.

제가 생활을 하면서 집이 열린 집을 만들다 보니까 단원들보고 “어려운 일, 애로사항, 즐거운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라.” 그랬더니 한 단원이 , 아니 여러 단원이 11시나 자기들 일 다보고 난 뒤에 잠자려고 하는데 들어와요. 들어와서는 자기들 고민 이야기를 하는 데 어떨 때는 기분 좋게 웃으면서 나가는데 어떻게 다음에 오지 마라고 합니까? 그런 것이 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단원은 신발 부품공장을 하고 있는데 이 공장에서 부산말로는 보루라고 하는 걸레가 있거든요. 선반을 닦는다든지 걸레를 보루라고 하는데 그 걸레 값이 한 달

에 한 일 이십 만원씩 든다고 그래요. “야, 거 몇 십만원 들일 것 뭐가 있나. 가내공업이라 수입도 많이 없을 건데.” 하여 걸레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모이느냐? 법회 공고 시간에 “헌옷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광고를 하니깐 ‘이것 버릴 데도 없는데 잘되었다’하고 가져온 것이 한번에 몇 개월씩 쓸 것을 가져오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이 그냥 가져다줍니까? 다 빨아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내공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못 사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스는 동네에서는 못 입는 옷이라고 내어놓은게 거기가면 새 옷이라고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동네 할머니들이 작업복으로 입는다, 아니면 외출복으로 입는다 하여 옷을 많이 가져가 버리고 나니까 옷 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 이 단원이 한다는 이야기가 나는 돈도 별로 일단 걸레 안 사니까 돈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옷 주니까 인심반조. 저는 2중 이익이니까 교당에 매일 와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80년도 당시에 법회에 총 4번밖에 참석을 안 했거든요. 81년도에 빠진 것이 총 8번입니다. 82년도 6번밖에 안 빠졌어요. 그리고 부인은 우리 교당 총무 맡아서 굉장히 열심히 마음공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단원들의 애로 사항,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단원들의 마음을 살피준다면 훨씬 더 부드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승용차 무거운 것을 타고 다녔었는데 봉고차가 마음에든게 있더군요. 그래서 ‘아, 차 바꾸어버리자,’ 그래서 제 차를 처분해 버리고 봉고차 중고를 한 대 샀습니다. 다목적으로 그 차를 이용하는 거죠. 출퇴근 할 때는 제가 쓰고 집안에 어른들도 있고 하니까 밖에 나갈 일 있으면 쓰기도 하고 주로 쓰는데 일요일 오후 일이 있어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우리 단원들끼리 움직일 때 주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단원들이 젊으니까 아 어린이들도 안 있겠습니까? 어린이들이 무슨 재미로 교당에 오겠습니까? 법회 마치고 아버지하고 바닷가 가는 재미로 오거든요. 산에 가는 재미로 온다구요. 그러니까 법회 마치고 아이들 데리고 바닷가를 간다 산을 간다 해서 아이들 마음을 풀어주고 너희들 교당만 아빠 모시고 오면 매일 놀러 다닐 테니까 하면서 아이들 꼬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다 입교가 되어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단원들이.... 배내골 봉불식을 했죠. 그 때 봉고차로 우리 단원들만 주르륵 태우고 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제가 단원들에게 면허증만 가지고 있으면 집에 일 있을 때 차 그냥 준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일 있어도 면허증만 제시하면 차 쓸 수 있으니까 가지고 가서 활용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단원 가정에 이사를 해서 이안 봉불식을 한다든지 기타 생일, 애들 돌 등 가정에 일이 많습니다. 이 때 저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은 둘째치고 모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다른 손님들 다 치우고 난 뒤에 우리는 아무거나 차 한잔이라도 좋으니까 주인으로 초대한다라고 생각하고 손님이 아니니 간단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음식을 차린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인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즐거움이 더 큰, 단원들이 만나 즐거워야지 교당에 나오든지, 아 재미있어야 교당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재미없고 힘들고 다리 아픈데 나왔다가 억지로 단장님이 되게 잘해 가지고 자주 나오시라고 해서 몇 번 하다보면 부담감이 있으면 지치고 그러거든요. 일단은 첫째 목적은 광대무량한 낙원건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데 그게 첫머리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야 아파트 생활 너희가 많이 안 해봤나? 거기 마음공부 안한 사람이 거기 밑에 있어서 가서 열어 놔서 터져 버리면 너희 아파트 다 날아갑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IMF시대니 뭐니 해서 어렵지만 우리 국민 개개인이 다 잘 챙겨왔다고 한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부산 4백만 인구 중에서

지금 원불교 교도가 0.2%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요게 10%내지 20%만 된다고 한다면, 부산 경제, 살의 질 전국에서 5번째 나쁘다고 하는데 훨씬 나아질 겁니다. 우리 세상이 원불교 마음으로만 산다고 한다면 그게 기본이거든요, 둘째는 재미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마음공부는 왜 해야되느냐 하면 본업을 쟁겨나가기 위해 마음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고 둘째는 교당생활의 재미가 들 때 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회를 마치고 나면 바쁜 사람이 있다든지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도 저희들끼리 모여 가지고 탁구, 당구, 볼링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교법에 어긋나지만 안으면 됩니다. 다만 하지 않는 것은 화투, 트럼프 있죠? 이런 것은 안해도 뭐 교법에 어긋나지 않고 놀 수 있고 테니스라든가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을 개방해놨더니 몇 년 되면서 스스로들 형이고 동생이고 언니며 아우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걸 요때 한 번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잡느냐. 친화, 즐겁게 만나는 것은 이 정도 하면 되는데 이제 교법을 한번 주입 시켜야 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번밖에 못 했지만 효과가 조금 있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박3일간 일정으로 장소를 찾아서 시간을 맞추다보니까 전부 직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맞아요. 그래서 교당을 이용해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박3일간 ‘나를 찾는 마음공부, 나를 놓는 마음공부’라는 제목으로 마음공부 훈련을 냈습니다. 교무님과 같이 했는데 그 때 교무님께서 숙제를 내주셨어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그냥 와서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준비를 해 가지고 와라. 단원들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표어중의 하나, 어떤 한사람에게는 사요 중에서 하나, 삼학팔조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18명에게 전부 숙제를 내 주었습니다. 발표시간은 15분에서 20분. 했더니 저는 처음에는 15분이나 할 이야기가 있겠는가 싶었더니 의외로 다들 원불교 용어사전을 뒤지든 뭘 뒤지든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알찬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듯이 일반교도들이 새벽기도 잘 안되거든요. 그리고 목탁 있어도 잘 안쳐 집니다. 그리고 죽비 치고 사회 보는 것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자, 한번 다 해 봐라”하고 시켜 주었습니다. 경중도 치게 했습니다. 자기들은 뒤에만 앉아 있다가 해보니까 참 신기했죠. 그러면서 저녁에는 이틀동안 108배를 시켰습니다. 108배를 시켜 놓으니 땀이 죽죽 납니다. 안한 사람이 108배 하려고 하면 땀이 다 납니다. 하다보니까 자기들 가슴속에 모두가 뭐가 조금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제식은 결국 12명밖에 못했습니다. 시간이 안되면 토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하는 거라도 단장님 자주 만들어 주이소. 우리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는데 저도 바쁘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더 이상 좋은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찍 집에 들어가 자다보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해서 단원들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소위 인적 사항을 일목 요연하게 만들어서 교당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만들어 준다면, 무슨 행사를 했다 그러면 단원 모두에게 누구누구 부부께서 편지를 써 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런데 사실 전화보다는 편지가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편지 받은 사람들은 바로 답장이 오는 사람들도 몇 명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몇 권 구입해서 나눠줘도 되는데 좀 좋은 것 안 있습니까? 우리 교전 중에서도 그렇다든지 아니면 책자도 그렇고 올해 나온 것 중에 그런 것이 있죠. 좌산 종법사님 정전 좌선의 방법 해설 요거를 권당 3천원인가 2천원인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열 권이나 스무권 사면되는데 그걸 워드프로세서로 제가 다 쳤습니다. 쳐서 복사를 해서 나누어주었습니다. 그 인쇄물, 책자물을 나눠주는 것을 단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들도 좋아하고 저는 치면서 일고 글자 속도도 늘고 빨라지고 그러니까 일석삼조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화단회 실시 사항을 말씀드리려면 월초에 합니다. 안내 책자가 나오지만 월초에 하게 돼 있거든요. 월초에 해야 한 달 동안 공부를 하죠. 월초에 빠짐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81년도 한해동안 연인원 127명이 15명 이상이 단회에 참석하게 된거죠. 연말에 그냥 단회만 했다고 끝내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단원들에게 단회가 좋은 점 10가지, 단회가 싫었던 점 나뉘었던 점 5가지 적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개인마다 적어서 보내왔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그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려면 좋은 점은 교화단원 끼리 어색함이 없어졌다 라는 제목아래서 첫째, 친목이 도모될 수 있었다.

둘째, 경조사 등 즐거움은 배가하고 슬픔은 나눌 수 있었다.

셋째, 마음이 어둡고 답답할 때 터놓고 이야기 할 곳이 생겼다.

넷째, 성가를 통해 일체감을 맞출 수 있었다.

다섯째, 각자의 직업이 다르므로 생활관 직업관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리공부를 가까이 할 수 있었다]라는 제목아래서는, 단회를 통해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다, 두 번째 교사도 조금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대중사 이화선진들의 구도역정을 느낄 수 있었다 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또 부부 [교화단이란] 제목 아래서는

첫째, 부부가 함께 신심을 키울 수 있었다.

둘째, 함께 공부한다는 자긍심이 있다.

셋째, 아이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다.

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사회의 타인에 대하여 원불교 교도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답이 결론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단점을 이야기 해 보니까

첫째, 워낙 불러대니까 사생활, 개인 생활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둘째, 상대에게 나의 잘못을 보일까봐 조심스러웠다.

셋째, 교리공부의 부족함이 나타날까봐 부끄러웠다.

넷째, 사교성 대화를 할까봐 조심스러웠다.

다섯째, 사종의무를 지키지 못하여 죄송스러웠다.

여섯째, 단테를 위한 행동 반경으로 좁혀질 때도 많았다, 마지막으로 재미있습니다.

일곱째, 부부가 같이 있다보니까 남편 흥분 시간이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개선을 해서 장점은 살려나가고 단점은 보완해 가지고 우리 교화단을 잘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화단의 가장 특징 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합니다. 지금 이 옷이 좋긴 좋습니까? 괜찮습니까? 이 옷이 우리 교화단에서 만든 성가합창단복입니다. 앞서 법회를 마치고 나면 저희 집을 이용한다든지, 바깥출입을 하였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기에는 참 역부족이었습니다. 해서 법회가 끝나면 그냥 돌아가려는 단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교당에 잡아놓을까? 어떻게 하면 교당에서 같이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성가 노래연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나면 교도님들께서 식당에 내려가 라면을 끓여 먹든지 교당에서 밥이 많이 남아있다면 얻어먹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노래연습 마치고 난 뒤에 밥을 사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성가연습을 꾸준히 시켰습니다. 한 2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의 희망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단이 교회의 성가대 같이 법회를 볼 때 좀 장엄해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죽 서가지고 같이 부를 수 있도록 하면 법회시에도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단원들을 협박 반 회유 반 해가면서 열심히 몰로 갔습니다. 몇 개월 하면서 성가가 사에 내재되어 있는 것 있죠. 그리고 담겨있는 법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가 중에서 부산에서 작사가 된 것이 있더군요. 성가 107장 ‘저 허공에 밝은 달’이라고 하는 성가가 삼산 김기천 종사님이 작사한 것인데 그 달이 하단 달이더군요, 낙동강 달이더군요. 그 당시 근무하신 곳이 하단지부였으니까. 그래서 “야, 달 보러 가자. 노래부르면서 달 보러 가자” 그래서 가기도 하면서 성가와 같이 이야기되는 것은 법문이 담겨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냐하며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사에 고와 락들을 이야기하다보니까 몇 건을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많이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몇 명이 모여서 노래부른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많이 협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연습해서 그 결과는 작년에 81년도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당 대각개교절 기념식 때 각 교회단별 성가대회를 하는데 우리 단 말고 일등할 단이 있었습니까? 우리 단이 일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1일날 2박 3일간 차량 두 대 80명이 총부 등으로 성지순례를 왔습니다. 우리 단원들 출근해야 되는데 “야, 우리 오늘 하루 결근하자” 그래서 15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중법사님 모시고 제가 감상담 발표를 하게 돼R고 15명이 성가 1등 곡을 합창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또한 계속 꾸준히 연습에 대한 연습을 했습니다. 일요일 오후만 되면 연습을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금 부산 2천년대법회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 행사분과장으로 추천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2천년 원기 85년에 정산종사 탄생 백주년 행사를 만 명이상이 모인 법회를 대법회를 부산에서 갖자 그래서 준비중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삼하나 운동을 벌이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들 하고 있습니다만 그 출범식 때 삼하나 운동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사 교구가를 중법사님이 직접 작시를 해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불러본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부르려고 하니까 만만한게 우리입니다. 불러봐라 해서 거기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부르는 그런 영광도 누려봤었습니다. 우리 교구장님이 교산 이성택 교구장님이신데 “야, 너희들 노래 좀 할 줄 아네.

원음합창단 발표식에 너희들이 찬조출연을 좀 해라.” 30명 이상이 모여서 찬조출연을 하라는 명령을 또 받아드렸습니다. 작년 11월 달입니다. 11월까지 1주일에 서너 차례입니다. 노래 못해도 많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셋말로 가수가 노래 한 곡 히트하려면 천 번 이상 부른단다. 우리는 백 번은 불러야 될 것 아니냐 오너러 오너라 그래서 부르기 시작한 것이 일주일에 단원들을 한 서너 차례씩 불러 제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에 행사는 부산교구 행사이지만은 일반부대인 부산 문화회관 강당에 저희들이 옷을 입고 29명이 서서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럽더군요.

그리고 우리 교구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천년 대 법회 때 2백년 이상의 연합합창단을 만들어라 그 때 우리가 주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다른 교당과 연결을 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그렇게 우리교당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부산교당에서도 청운회 멤버로 해서 바로 합창단을 했고 서면 교당에서도 합창단들 결성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선두주자입니다. 우리가 제일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죽 하다보니까 별 한 일도 없는 것 이루어 놓은 것도 없이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연교당에 부부교회단 단원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은 “야, 우리는 자질이 있다. 우리 목표는 교구내 아니 교단

내에 최고 교화단을 한번 만들어 보자. 행복한 단위가정이 낙원세계 건설의 기초다. 그 마음을 토대로 해서 행복한 단위가정을 다 이뤄나가야지 안에서는 빼앗하는데 밖에서는 절대 안된다. 우리가 모여서 재미있게 지내면 우리는 최고의 교화다. 각 가정의 행복은 물론이고 최고의 교화다. 나가서 대중사님의 정법제자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최고 교화단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욕심을 가지고 지금도 정진하면서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 마치겠습니다.